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 「에어 풀류 촌」에 있어서 「오존」이 오후 2, 3시경에 가장 증가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太陽 光線의 紫外線 관계 때문에 이 런 점을 고려해서 學校體育時間 을 변경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學校保健法이 있지만 별로 반영이 되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가 人口增加보다는 웨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質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E: 아까 DDT 가 직접 人體에 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바닷물에 0. PPM 만 들어가도 게라든지 새우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직접 우리 人體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學校의 體育時間 을 변동시키는 것이 學校 教育에 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體育時間 을 세제 시간에 할 것을 네제 시간에 한다든가 그 정도의 변동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막연하게 다루는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어야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내 이런 상태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점이 우려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 ※ ※

※ ※ ※

環境改善과 科學技術의 役割

工業化, 都市化의 進展에 따라 環境問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國民의 福祉向上과 관련하여 重要한 問題로 되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公害에 의한 人體被害의 防止와 自然保護의 科學技術開發은 새로운 課題으로 登場되고 있으나 이 分野의 研究態勢는 아직도 微微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이번에 서울大學이 環境大學院을 新設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大學다운 先導的 役割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大學院은 環境工學, 都市計劃學, 地域計劃學, 都市設計學, 造景學等 5개學科를 73년에서 75년 사이에 설치 2백명의 학생을 수용하며 國土建設 및 美化를 위한 人材養成과 工業化 및 都市化過程에서 야기되는 環境문제를 綜合, 科學的으로 解決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를 연구할 高級計劃家를 배출하기로 되어있다.

오늘날 환경파괴를 防止하고 健康을 지키는데는 各種의 規制와 公共投資 뿐 아니라 科學技術까지 포함하여 綜合의 인對策이 必要하게 되었다. 世界的인 公害學者 美國의 「하겐·스미드」博士는 工學이나 의학에 法律, 經濟學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環境學을 확립할 것을 提唱하고 있는데 서울大學의 環境大學院의 구성은 이런 先進的인 學說에도 부합되는 점에서 그 機能에 期待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公害現象은 그 發生原因이나 영향하는 범위가 多種多樣하다. 따라서 광범위한 조사연구, 技術開發이 필요하나 아직 이런 態勢가 되어 있지 않다. 公害의 測定調查, 綜合事前調查, 또 實驗단계이긴 하나 火力發電의 煙氣에서 硫黃성분을 빼는 排煙脫硫 등 應用面의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其礎研究가 충분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大氣污染에서는 지금으로서는 亞黃酸가 스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浮遊粉塵一

酸化炭素는 마로 하더라도 硝素酸化物, 炭化水素 등은 등한히 되고 있다.

公害를 實제로 막는데는 亞黃酸ガス以外의 오염물질에 관한 環境基準의 設定, 發生源對策, 土地利用의 適正化, 社會資本의 정비와 더불어 公害의 原因과 영향의 조사 연구태세의 확립, 公害防止기술의 개발과 實用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아니 여기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公害대책 등의 구체책을 세우는前提이다. 기초적 조사연구나 방지기술이 없고서는 公害의 事前調查는 물론 有効한 공해방지 계획의 책정도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此際에 現在정부의 관계 각부처에 分散되어 있는 公害, 環境관계의 調查研究기관도 全體의 으로 통일된 연구태세를 확립하기를 바란다. 물론 公害防止技術 研究기관을 한꺼번에 綜合한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대를 봄인 것 같은 것이 될 것이다. 重要한 것은 각研究기관의 個個의 研究者의 지금까지의 기술적 實績을 기초로 하여 公害研究者가 이것을 應用하여 實用화해가는 것이다. 그러한 形態로서라도 公害防止技術에 관한 綜合調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또 企業의 公害防止技術開發에 대한 姿勢도 문제다. 지금까지 企業側은 방지기술에의 투자를 가능한한 피하려고만 해온 것이 솔직한 實情이다.

그래서 公害가 發생하고 피해자가 생기면 비로소 문제가 되곤 하는 항상 뒤쫓는 公害對策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돈이 더 듣다는 결과가 되고 있다. 企業의 社會的責任에 비추어서뿐만 아니라 公害防止技術에의 진정한 자세는 企業에 있어 도리어 利益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環境保全과 公害防止의 기술개발은 오늘의 企業에 對한 時代의 要請이다. 企業學界 할 것 없이 모든 관계자들의 분발을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에서

다음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들 製品에 대한 세제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다 中間製品을 원료로하는 最終製品생산공장은 대부분 勞動集約의이나 公害산업으로서 선진국에서는 斜陽化의 길을 걷고 있어 앞으로 수출산업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輸出전망이 크게 밝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製品가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先進개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주기에는 비싸며 輸入가격보다도 더 코스트가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所要資金조달에 있어 外資依存度가 다소 높은데다가 施設규모 역시 선진국에 비해 국제單位에 未達함으로써 規模의 경제를 이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不利한 여건을 커버할때 까지는 開發初期단계에 있어 先進諸國이 모두 그러했듯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商工部가 발표한 製品別 國內공급가 격을보면 폴리에티렌 VCM 아크릴로니트릴 폴리프로필렌 SBR 알킬벤젠등 6개 가운데서 폴리에티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나머지 製品값은 輸入가격보다 모두 비싼 것으로 되어 있다.

石油化學공장은 막대한 자금과 기술 그리고 넓은 시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初期 단계에는 상대적으로 공장규모가 작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와 같이 제품가격도 비싸기 마련이다. 정부도 이 점을 감안, 앞으로 관련공장을 年次의으로 확대시키며 오는 67년까지는 第一의 石油化學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든 이번에 石油化學계열공장의 일괄준공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시설확장 및 합리적인 投資계약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지금까지의 輕工業위주의 對外輸出구조도 重化學공업제품으로 전환시켜 輸出立國의 길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科學漫評

申東憲



하나밖에 없는 한국 깨끗이 키우자.